

# 장르와 세대 아우르는 佛母 한자리에

### 일섭 문도회 제2회 회원전 '불모들의 향연'

금용 일섭 스님(1900~1975)은 평생 동안 전국을 돌며 불화 단청 불상 조각 등을 남겼다. 해인사 사천왕탱화, 조계사 후불탱화, 송광사 시왕각부탱화, 옥천사 팔상탱화, 백양사 사천왕 소조상 등 남쪽 제주부터 북쪽의 함흥연변까지 전국 주요 사찰에는 스님의 흔이 깃들여 있다. 이런 스님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그 후학들에게 이어지고 있다. '불교미술 일섭문도회' 회원은 현재 300여명. 그들은 문도회를 결성해 일섭 스님의 정신을 기리는 동시에 불교미술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장르와 세대를 아우르는 일섭문도회의 '불모들의 향연'이 3월 9일~16일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다. 전연호의 '금니 천수관음도'

수안 스님 등 100여 작가 참여  
불화 조각 단청 사진 등 선보여  
3월 9일~16일 예술의 전당서

관세음보살'을 완성했다.

안경수의 '월광보조'는 서양식 드레스에 현대 미인의 얼굴을 한 관음보살을 표현, 불화에 만화의 여주인공이 등장한 듯한 느낌을 자아낸다. 2012년 허리케인 샌디로 많은 피해를 입은 뉴욕을 위로하기 위해 제작되었다는 박재연 'F장조의 파도소리'는 미디어 작업을 통해 사진에 청각적 요소를 삽입 입체감을 더했다. 김도래의 '극락으로 가는 날'도 눈에 띈다. 작가가 모친에게 선물하기 위해 제작했다는 이 작품은 한지로 만든 수의에 아미타불의 옷의 문양을 금박으로 표현했다.

또한 이번 전시 중에는 일섭문도회 신진 작가들을 위한 시상식도 마련한다. 전시 작품 중 6~7명의 회원이 수상자로 선정 창작 의욕을 북돋울 예정이다. 김성규 회장은 "우리나라 불교미술사 중 중세 조선후

기를 대표하는 불모로 유성(有誠)스님의 화풍을 빼놓을 수 없다. 그 전통의 맥이 금호 스님, 보응 스님, 일섭 스님 손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일섭 문도들은 이런 불교미술의 전통을 현대까지 잇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시와 더불어 후학 양성에도 최선을 기울여왔다는 의지를 담아 시상식을 열고 있다"며 취지를 전했다.

앞으로 일섭 문도회는 작품의 영역을 건축까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중이며 세미나 개최 등으로 불교미술 저변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일섭문도회는 조계종 제6교구본사 마곡사에 우리나라 초유의 불모비림을 조성 선대불모들의 행적비를 세우고, 불모수첩을 발행하는 등 불모계보의 체계적 정립에 힘써왔다. 또한 지난 2012년 첫 회원전 '불모들의 향연'에서는 100여 작가들이 참여 대규모의 전시를 치른 바 있다. 또한 석정 스님, 청원 스님, 전기만, 조정우, 양용호, 이경오, 권현규 씨 등 15명의 회원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며 다수의 회원들이 문화재수리기술자로 활동하고 있을 만큼 한국 불교미술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혜숙 기자 bwjhs@nyunbul.com



허길량 작가가 출품한 동자 동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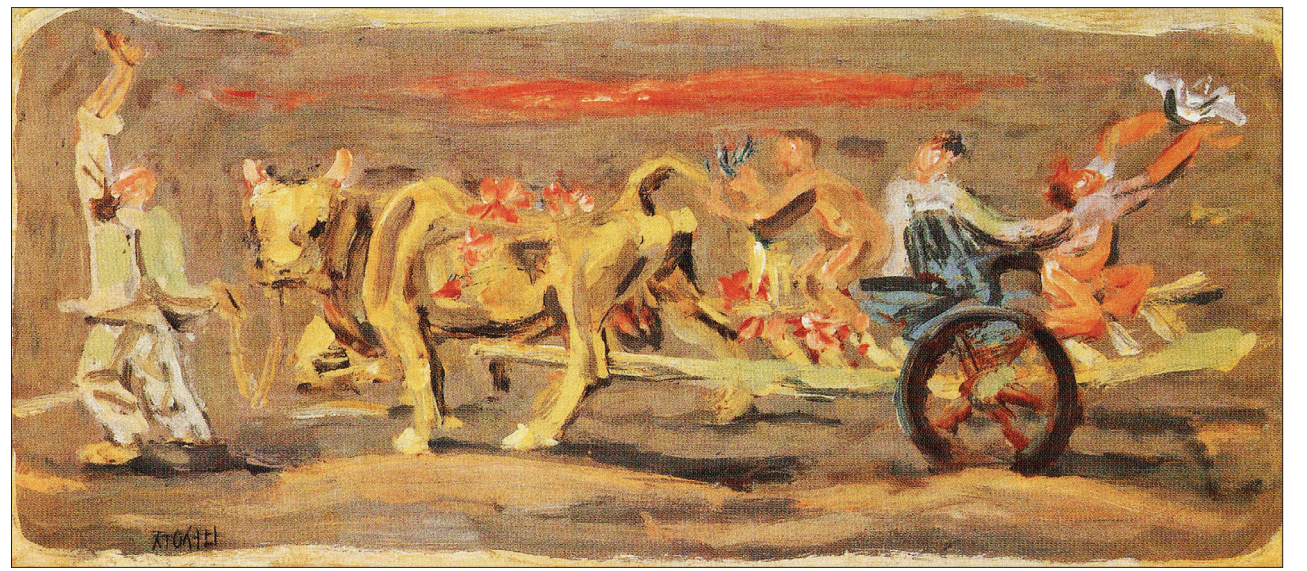


현대식 관음보살을 표현한 안경수의 '월광보조'



김도래의 '극락으로 가는 날' 한지 수의

문화속에서 만난 佛敎



'이중섭의 사랑, 가족' 전시 서울 종로구 삼청로 현대화랑서 열렸다. '가족 따뜻한 남쪽 나라로'는 가족과 함께 하고싶은 이상향을 담아냈다.

## 구도의 상징 '소' ... 내면세계 폭발적 표현

현대화랑 '이중섭의 사랑, 가족'展

제주도를 가던 자주 들리는 곳이 서귀포에 위치한 이중섭 거리다. 여기에는 이중섭 미술관과 함께 작가의 거주지가 위치해 있다. 한국전쟁 당시 가족들과 피난 와서 잠시 머물렀던 곳으로, 배급을 받으며 가난하게 살아야했지만 작가와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어 행복했다고 많은 명작을 남긴 장소이기도 하다. 이 장소는 이제 기념비처럼 남아 그의 예술세계와 가족 사랑을 한눈에 보여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다.

소의 작가 이중섭의 가족 사랑이 또다시 대중들의 마음을 적시고 있다. 서울 종로구 삼청로 현대화랑에서 열리는 '이중섭의 사랑, 가족'展은 예술에 대한 그의 열정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전시다. 끼니를 이룰 수 없을 만큼 가난했기에 아내 아미모토 마사코(한국명 이남덕)와 두 아들을 일본으로 보내야했고 그 그리움을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이기에 관람객들은 이 작품들에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유채 채색화 드로잉은 물론이고 유화시절 글을 대신해 사랑을 전했던 엽서화, 가족들에게 보냈던 편지화, 담뱃갑 속 은지에 새긴 은지화 등이 선보인다. 여기에는 '새로운 부처님'과 '연꽃을 줬 아이' 등 불교 관련 작품도 눈에 들어온다. 특히 '새로운 부처님'은 아기부처와 불상을 나체로 표현한 은박지 그림으로,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파격적이고 불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전통을 소재로 작품활동을 해온 이중섭의 작품세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회화적 표정과 동작들이 흥미롭기만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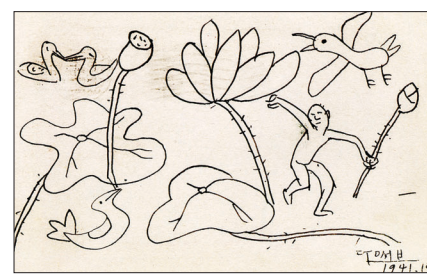
물론 이번 전시에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담긴 작품이 대부분이다. 아들에게 그

림을 그려 보낸 편지가 다수 전시되었고, 먹을 것이 없어 바닷가에서 게를 잡아먹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야생의 소를 길들이는데 비유해 10단계로 그려냈다. 여기에서는 불성을 소에 비유해 표현하고 있는데, 동자가 소의 발자국을 따라가다가 검은 소를 발견하니 야성을 길들이기 위해 소의 코에 코뚜레를 꿰고 삼독의 때를 벗겨내면 흰색이 된다. 이렇게 길들여진 소를 타고 마음의 분향인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 번뇌와 망상 욕망이 끊긴 상태가 되면 어느새 소는 사라진다. 소는 심원에 도달하기 위한 방편이었을 뿐, 이제 자기자신도 있어야 하니 이것이 곧 공(空)이며 완전한 깨달음이다. 산은 산 물은 물, 티끌 같은 번뇌도 없으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얻어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고 중생제도에 나서게 되는 것이다.

작은 종이에 담아낸 커다란 가족애  
소와 은지화로 한국인 심장 깨워줘  
'새로운 부처님' '연꽃을...' 눈길



'과수원의 가족과 아이들'



전통을 소재로 한 '연꽃을 줬 아이'

를 꿰고 따뜻한 남쪽나라로 가는듯한 이 그림은 희망적이고도 역동적이다. 여기에도 작가의 대표 소재인 소가 등장한다. 이중섭의 소는 작가의 격렬함과 집념, 우직함과 자연스러움, 아만성과 고뇌와 연민, 환상과 방랑성, 갈망과 광기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정혜숙 기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통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주**

“전통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사람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징”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동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경단 공단로 82-6(경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중급·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식, 종송
    - 예경 : 칠정제,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묵탁
  -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음(매불이음), 대령, 관육, 옹호계(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정, 시왕도정, 전사식, 관음의식, 상용연변, 화엄사식, 구병사식, 봉송편
  -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리나비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적작법
    - 사 물 : 태정, 북, 광식,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특 강 : 종사이음, 종사연변, 점안의식, 시디림(대비), 예수제의식 등
- 라. 강 주 : 석범은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 (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북성9길 28 (북성리 1095) 대한불교영남총회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 974-2705

**영남전통 범음·범패 교육원**

### Buddha Voice Choir

**단원모집**

본 합창단은 우리 찬불가만을 연주하는 것을 특징 지을 수 있으며 찬불가 발전보급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모집대상 : 남·녀 000명 (연령제한 없음)
- 면 접 : 우리가곡 또는 발라드풍가요 1곡
- 장소 및 문의 : 음악감독 겸 지휘자 studio 청법가 작곡자 이찬우 ☎ 051)866-838